

남편 향한 애절한 그리움... 손끝서 피어나다

김혁중 전 광주대 총장 1주기

아내 송숙남 교수 개인전 열어 28일까지 광주대 호심미술관서 회화·주얼리·사진 40여점 선보여 유학시절 주고받은 편지 '눈길'

“감상에는 정답이 없죠? 작품을 보고 떠오르는 심상을 느껴보세요.”

20일 광주대학교 극기관 1층에 마련된 호심미술관에서 ‘디자인경영상학’ 수업이 한창이다. 조금은 특별한 전시를 보기 위해 학생들과 관람객들의 발길이 분주하게 이어진다. 관람객들은 저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스승이었던, 누군가에게는 교육의 미래를 함께 논하는 동료였던, 누군가에게는 무등산과 같은 아버지였던, 누군가에게는 40년의 사랑이었던 그를 추억한다.

호심미술관에서는 김혁중 전 광주대 총장 1주기를 기념해 마련된 추모전 ‘맞아

요 블루’가 열리고 있다. 그의 부인 송숙남 광주대 패션·주얼리 학부 교수의 열다섯번째 개인전이기도 한 이번 전시에는 회화와 주얼리, 사진 40여점을 선보여 사별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다. 부군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 1년. 깊은 슬픔은 손끝에서 다시 예술로 피어나다.

김 전 총장이 가장 좋아했던 색이라는 ‘블루’와 무심하게 화면을 흘러내리는 드립핑 자국과 낙서기법을 사용해 그린 추상화에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헛헛함으로 가득하다. 송 교수는 생전 다하지 못한 아내로서의 회한을 써 내려간다.

특히 작품 중 단발머리 여성을 그려 넣은 전진난만한 회화작 ‘my wife(마이와이프)’가 눈길을 끈다. 1982년 8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장기간 유학을 떠난 김 전 총장이 아내의 초상화를 그린 것이다. 사랑 고백과 당부의 내용이 담긴 편지글도 함께 말이다.

“숙남!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20일 광주대학교 호심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김혁중 전 광주대 총장 1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전 ‘맞아요 블루’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항상 그대 곁에 있고... 당신 얼굴을 그리다
조금 그려봤는데 너무 예쁘게 그려져서(?)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내 비록 그림에 문외한이라고 해도, 우리 숙남의 얼굴만은 세상에서 제일 잘 그리

자신이 있는데... 나중이라도 다시 그리거나 손질하지 말기를. 나의 절실한 사랑이 담겨 있으니.”
송 교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40년만에 답화를 그렸다. 김 전 총장의 열

굴을 형상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것. 조금은 휘어진 양 눈썹과 힘차게 내리그은 긴 콧대, 콧대 위에 걸쳐진 투명한 안경테, 양 콧방울에서 시작하는 좌우 비대칭의 길고 짧은 팔자 주름, 그리고 조금 경사지 입술까지. 두 작품 모두 추모전의 숙연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관객을 웃음 짓게 한다.

한편 김혁중 전 광주대 총장은 향년 64세의 나이로 지난해 6월10일 별세했다. 그는 광주대 설립자인 고 인근 박사학사의 장남으로 미국 캔자스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 1987년부터 광주대에서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교수, 기획실장, 총장직을 수행했다.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이번 추모전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7월18일부터 31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이어진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니콜라 부리오 방한

선임 이후 첫 한국 방문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가 선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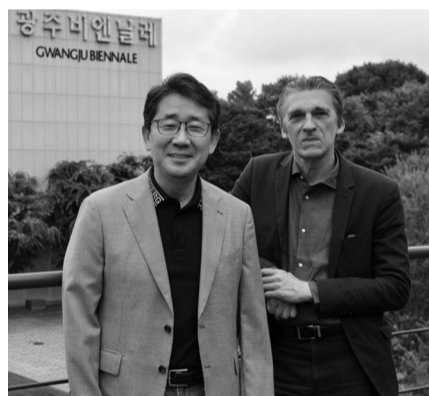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니콜라 부리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20일부터 27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지난달 10일 선임된 니콜라 부리오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째 리서치로 광주 주요 문화예술 기관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공식 일정 첫 날인 21일 제문헌 3층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각 실무 임원들과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역사적인 의미와 향후 계획, 방향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내년 30주년 전시를 비엔날레다운 비엔날레, 즉 실험적인 비엔날레로 구현해줄 바란다”며 “광주비엔날레의 감독이 아닌 비엔날레, 곧 세계비엔날레의 감독이 되어달라”고 격려했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지난 5월 선임되고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박양우(사진 왼쪽)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과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

(재)광주비엔날레 제공

신분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해 매우 영광”이라며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비엔날레이자 1995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예술 행사 중 하나인 광주비엔날레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일정 동안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 주요 문화예술 공간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광주의 역사적인 장소인 전일빌딩 245를 비롯해서 양림동 일대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그리고 오는 25일과 26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방향성 발표 기자회견이 광주와 서울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도선인 기자

ACC재단, 창제작 콘텐츠 협력 전시할 기관 모집

30일까지 문화예술 기관 대상 미디어아트 작품 등 3개 분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함께 전시할 국내 기관 및 단체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협력 전시는 ACC에서 창제작한 콘텐츠 중 △컨템포러리 아트 △미디어아트 △융복합 등 총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컨템포러리 아트는 기후 위기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포스트휴먼 앙상블’ 등 ACC 전시 기간

동안 많은 인기를 얻은 7종으로 구성된다. 미디어아트 분야는 지난 2021~2022년 ACC 미디어월 콘텐츠 공모 당선작과 ACC 커미션 작품 등 총 24종이다.

이번 공모는 전시 시설을 갖춘 국내 문화예술 국공립 기관·단체는 모두 신청 가능하며,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7개 안팎의 참여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작품은 선정된 기관의 전시 환경 및 선호도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http://www.accf.or.kr>) 또는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선인 기자

ACC 광주 건축유산·한국 대중음악 주제 강연

24일 토요 아카이브 강연·28일 수요일 음악 감상회

아시아문화박물관 특별열람실 강동수·오석근·이봉수 등 진행

근현대 광주 건축유산과 한국 대중음악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4일과 28일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특별열람실에서 소장 자료(아카이브)의 이해를 확대하고 담론을 확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24일 열리는 ‘토요 아카이브 강연’에는 한옥 목수 강동수와 작가 오석근이 강연자로 나선다.

강동수 목수는 ‘사라져가는 근현대 광

주·전남의 건축문화유산’을 주제로 기존 전통 양식에 중국, 일본, 서양 등의 영향과 건축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변용된 한옥의 모습을 살펴본다.

오석근 작가는 ‘실용과 기복: 적산가옥의 변용과 한국주택의 기복 문양’을 화두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작가의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이기도 한 ‘적산(敵産)’과 ‘기복(祈福)’ 등 두 연작을 중심으로 광주를 비롯한 지역 건축에 나타난 생활양식 기록을 공유한다.

오는 28일 ‘수요일 음악 감상회’에서는 이봉수 비트블뮤직 대표가 ‘팝스코리아나, 15년의 기록’을 주제로 한국 대중음악을

되짚는다.

‘팝스코리아나 시리즈’는 비트블뮤직이 2007년부터 시작한 ‘한국 대중음악 음반 재발매 프로젝트’다. 1세대 한국 재즈 연주자들의 기록이 담긴 ‘JAZZ’부터 오아시스레코즈의 앨범까지 음반 재발매 과정을 음악과 함께 듣는다. 각 프로그램은 ACC누리집(www.acc.go.kr)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소장 자료 열람과 연구를 지원하는 공간인 ACC 특별열람실엔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면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수요일 음악 감상회’를, 토요일엔 ‘토요아카이브 강연’을 개최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도선인 기자

랑 현악사중주단 ‘현악을 사랑한 브람스’

광주문화재단 월요콘서트 26일 빛고을아스트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스트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월요콘서트 아홉번째 무대에 랑 현악사중주단을 초청, ‘현악을 사랑한 브람스’를 선보인다.

2009년 창단된 ‘랑 현악사중주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실내악 단체로 ‘랑’은 독일어로 ‘길다’라는 의미로 ‘나랑 너랑’, ‘함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들은 정통 클래식 음악과 여러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다가가는 예술적 시도로 예술문화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바하 ‘푸가의 기법’, 비엔나의 라주모프스키 백작, 랑 사중주가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 양림 언덕의 풍경소리,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 아리랑’ 등을 선보여 중견 연주단체로서 다양한 기획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에 선정,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20여회 순회공연을 했으며 태고 콘서트, 박물관 음악회, 하우스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공연은 브람스 탄생 190주년을 맞아 브람스 실내악곡 중 String Quartet No.3 in Bb Major, Op.67(스트링 콰르테·현악사중주 제3번 작품67)과 String



랑 현악사중주단이 오는 26일 빛고을아스트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월요콘서트 아홉번째 무대 ‘현악을 사랑한 브람스’를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Quintet No.2 in G Major, Op.111(현악오중주 제2번 작품111)을 연주한다. 1833년 독일에서 태어난 브람스는 낭만주의 음악의 선도적인 존재로 베토벤, 바흐와 함께 ‘3B’로 불리는 작곡가다.

공연에는 바이올린 이수연(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수석), 바이올린 김소연(광주 예술고등학교 출강), 비올라 신정문(광주대학교 외래교수, 무지크바움 유스오케스트라 지휘자), 비올라 정호균(전남예술고등학교 출강), 첼로 윤소희(광주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외래 교수)가 출연한다. 2023 월요콘서트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스트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다음 공연은 올해 마지막 무대로 7월3일 로터 앙상블 ‘내 인생의 최고의 음악가’ 공연이 펼쳐진다.

월요콘서트는 6세 이상 관람가에 전석 5000원이다. 공연 관람은 사전 전화 예약 및 현장 예매로 운영되며, 광주문화재단은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실천하고자 매회 공연에 취약계층 대상 10석의 나눔 좌석을 제공하며 전화 예약을 통해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빛고을시민문화팀(062-670-7942)으로 문의.도선인 기자